

## 직업전문성에 대한 음악치료사의 인식

최주애\*

본 연구는 음악치료사의 직업전문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설문 참여에 동의한 음악치료사를 대상으로 전체 210부의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한 후 98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미완성된 응답을 제외한 78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설문 문항은 음악치료사의 기본 정보 10문항, 전문성 인식 27문항으로 전체 3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결과, 음악치료사들은 직업전문성에 대해 높은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직업전문성 하위영역 중 사회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직업전문성 인식 점수를 교육 정도에 따른 집단 간 비교 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직업전문성 인식 점수와 경력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음악치료사 전문성에 대한 자기평가는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음악치료사가 전문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 측면과 관련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본 결과를 통해 음악치료사의 직업전문성 인식이 개인적 측면 외에도 조직적, 사회적 측면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교육과정 내에서 높은 수준의 음악치료 교육이 전문성에 대한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음악치료사들의 전문성 인식 결과를 통해 음악치료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 방향과 전문성 관리를 위한 재교육의 필요성의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핵심어 : 음악치료사 인식, 음악치료사, 직업전문성, 조사연구

---

\* 라아쉬 뮤직 연구원, 음악중재전문가(KCMT) (ch3658@hanmail.net)

## I. 서론

현대 사회의 기술 및 문화의 발달은 직업의 다양화를 동반하여 새로운 직업 창출과 함께 직업 특성의 세분화 및 전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직업의 내용과 역할에 따라 각 직업전문성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Cha, 2008; Kim & Han, 2012; Kim & Yoo, 2011; Lee, 2011). 직업전문성은 각 직업의 특성을 규명하여 직업에 대한 기준과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그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따라서 직업 내 개인의 인식 수준은 직업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게 되고, 이는 개인의 전문성 신장 뿐 아니라 직업분야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Kim, 2009). 또한 직업전문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자신의 직업에 임하는 태도와 연관될 수 있어 전문직을 가진 개인들의 직업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는 것은 전문분야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하다.

국내 다양한 직업 분야 내 직업전문성에 대한 인식 연구를 살펴보면 그 직종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줄 뿐 아니라(Han & Hwang, 2012) 전문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소들인 윤리(Kwon, 2009; Lim, 2002), 개인 역량(An & Kim, 2015; Chang et al., 2015), 소진(Kim, Nam, & Jin, 2014; Koo & Kim, 2016; Lee & Bang, 2015) 등과 같이 다양한 범위의 변인들을 중심으로 연구들이 진행되어 전문성의 요인과 개인 내외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치료분야에서 다뤄진 직업전문성 인식 연구 역시 전문성의 하위 영역 중 개인의 업무수행 내용 및 기술과 관련한 개인적 영역을 강조하였으나(Chong, 2007; You & Choi, 2012) 직업에 따라 사회 내 직업의 책임과 인식을 포함하는 사회적 영역을 중시하기도 하였다(Han, Sohn, Park, & Kang, 2010).

음악치료사 또한 개인의 건강 회복을 목표로 세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엄격한 자격기준과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다(Alley, 1978; Moreno, 1969). 음악치료사의 전문성에는 학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 전 과정이 포함된다(Chong, 2015). 또한 음악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은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Chung, 2001), 각 대상의 주요 증상과 필요에 따라 음악치료의 목적과 목표가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Bruscia, 2014; Davis, Gfeller, & Thaut, 2008).

반면 국내 전문 음악치료사 자격의 경우 주요 음악치료사 양성 교육기관들의 협의에 따른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Music Therapists, 2016), 자격증 제도의 미확립으로 인해 다양한 자격관리 주체가 혼재하여 음악치료 현장에서의 음악치료사 전문성에 차이가 있다. 2008년 보건복지부에서 도입한 발달재활서비스는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여 수혜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이점이 있는 반면,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에 대한 충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전문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인력이 다수 포함되었다(Kim, 2015). 이러한 불분명한 자격기준과 이를 반영한 서비스 제

도들로 인해 서비스 수혜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현 시점에서 음악치료사 개개인이 갖는 직업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발표된 음악치료사의 전문성에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의 역량이나 (Jeong, 2013; Kim, 2010; Kim, 2013), 소진과 관련한 연구(Kim, 2012; Yi, 2008)와 같이 전문성의 하위영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음악치료사의 직업 자체에 대한 전문성 인식과 관련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음악치료사의 직업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음악치료사가 전문성을 갖고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또한 음악치료사의 전문성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으며, 음악치료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음악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음악치료사를 대상으로 직업전문성 인식을 조사하여 전문직으로 음악치료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음악치료사의 직업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경력, 교육정도에 따라 직업전문성 인식의 차이와 직업전문성에 대한 음악치료사의 자유로운 의견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국내·외에서 음악치료 학사 및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음악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현재 음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 음악치료사를 대상으로 실행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에 사전 동의한 전문음악치료사 중 연구 목적과 절차에 동의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에 한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초기 배포된 총 210부 중 98부가 회수되어 최종 46.7%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미완성된 응답 20부를 제외한 78부를 분석하였다.

### 2. 조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내용은 크게 음악치료사의 기본 정보와 음악치료사 직업전문성 인식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직업전문성 인식 관련 문항은 음악치료사의 직무를 바탕으로 음악 기술, 내담자 진단, 치료 적용, 치료 평가, 연구개발, 윤리, 수퍼비전, 팀 협력, 전문단체, 사회적 인식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문직 지식과 기술 관련 문항은 앞선 선행연구

(Kim & Kim, 2011; Kim & You, 2011)를 참고하였다. 조직적, 사회적 측면의 문항은 재활치료와 언어치료에서 전문성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설문지(Han & Hwang, 2012; You & Choi, 2012)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재구성 결과 총 25문항의 전문성 인식 설문내용이 구성되었으며 개인적 측면과 관련된 문항에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내담자 진단 및 상담, 치료평가, 연구개발, 치료철학, 자기관리, 수퍼비전이 포함되었으며, 조직적 측면과 관련된 문항에는 팀협력 및 기관, 전문단체, 윤리강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사회적 측면 관련 문항으로는 자격, 사회적 필요성, 봉사, 책임, 인식을 포함하며 음악치료사에 대한 직업적 인식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 및 통계 처리를 위해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음악치료사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를 사용하여 기본정보, 음악치료 현장, 자격증 관련 배경을 분석하였다. 음악치료사의 직업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음악치료사의 교육정도에 따른 직업전문성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 ANOVA를 실시한 후 Scheffe 방법을 사용하여 사후 검증하였다. 음악치료사의 경력, 직업전문성 인식 점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음악치료사의 직업전문성 자기평가점수는 기술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Ⅲ. 결 과

### 1. 응답자 기본정보

본 연구의 설문조사 응답자는 국내외에서 음악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치료사 98명이다. 회수된 98부의 응답 중 미완성된 응답 20부를 제외한 78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기본 정보 중 성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남성이 6.4%(5명), 여성이 93.6%(73명)로 여성 음악치료사의 참여 비율이 높았다. 설문에 응답한 음악치료사의 연령대는 만 23세부터 만 55세이며, 평균 나이는 만 31.4세로 이 중 20대의 비율이 51.3%(40명)으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응답자들의 최종학력을 살펴본 결과, 석사과정 졸업 71.8%(56명), 박사과정 이상 12.8%(10명), 석사과정 재학 9.0%(7명), 석사과정수료 5.1%(5명), 학사과정 졸업 1.3%(1명) 순이었다. 응답자가 소지한 음악치료사 자격증의 발급

기관은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 83.1%(69명), (사)한국음악치료학회 8.4%(7명), 국외 음악치료 단체 8.4%(7명)으로 집계되었다. 자격증 발급기관 정보는 국내외 기관의 자격증을 동시에 보유한 자를 고려하여 다중 응답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응답자의 자격증 소지기간의 경우 1년 미만이 14.1%(11명), 1년이 37.2%(29명), 2년이 12.8%(10명), 3년이 9.0%(7명), 4년이 11.5%(9명), 5년이 5.1%(4명), 6년 이상이 10.3%(8명)이었다. 자격증 소지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6년이었다. 응답자의 임상 경력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6년이었으며 평균 경력 31.1개월, 표준편차 37.4였다. 응답자들이 소속된 전문 단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전국음악치료사 협회가 81.3%(65명), (사)한국음악치료교육협회가 10.0%(8명), (사)한국음악치료학회가 8.8%(7명) 순이었다. 다음으로 응답자들에게 전문 학술지 게재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26.9%(21명),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79.8%(67명)이었다.

## 2. 현재 활동 중인 치료 현장 관련(최근 1년 이내 경험 중심)

다음은 음악치료사의 근무 형태와 관련한 결과이다. 응답자의 근무 형태를 조사한 결과 파트타임 84.6%(66명), 풀타임 15.4%(12명)로, 파트타임이라고 응답한 음악치료사가 현저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활동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물어본 결과, 현재 음악치료에서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은 교육기관으로 24.1%(32명)가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복지관 19.5%(26명), 개인치료실 15.8%(21명) 순이었다. 기타의견으로는 가정방문이 있었다. 응답자가 현재 음악치료 세션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순서를 내담자의 진단명에 따라 살펴보면 비장애 24.1%(48명), 지적장애 23.1%(46명), 자폐 16.6%(3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현재 음악치료 세션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순서를 내담자의 연령대에 따라 살펴보면 아동 46.7%(93명), 성인 23.0%(46명), 청소년 20.0%(40명), 노인 10.0%(20명) 순으로 나타났다. 세션 대상자가 아동인 경우 지적장애가 11.6%(23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비장애가 11.1%(22명), 자폐 10.6%(21명)이었다. 청소년의 경우 비장애가 7.0%(14명), 지적장애 6.5%(13명), 자폐 4.0%(8명) 순이었다. 성인 대상군의 경우 지적장애가 5.0%(10명), 비장애 4.5%(9명), 정신장애 4.5%(9명) 순이었다. 노인 대상군의 경우 치매가 7.0%(14명), 비장애 1.5%(3명), 호스피스 0.5%(1명) 순이었다. 음악치료사가 현재 음악치료 세션을 진행하는 대상 주 시행대상 연령대로 범주화하여 살펴보면 아동이 47.4%(37명)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성인 20.5%(16명), 청소년 17.9%(14명), 노인 14.1%(11명) 순으로 나타났다.

### 3. 직업전문성 인식

#### 1) 직업전문성 인식 수준

본 영역은 음악치료사가 인식하는 직업전문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었고 전체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점수는 5점 Likert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성 인식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전체 전문성 인식의 평균점수는 4.12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다음으로 직업전문성 인식 점수를 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평균점수를 살펴보았다. 개인적 측면의 평균점수는 4.18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조직적 측면 4.18점, 사회적 측면 3.94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erceived Professionalism Rated by Music Therapists ( $N=78$ )

Aspect of professionalism	<i>M</i>	<i>SD</i>
Individual	4.18	0.63
Organizational	4.12	0.69
Social	3.94	0.73
Total	4.12	0.68

음악치료사의 직업전문성 인식 점수를 문항별로 살펴본 결과, 개인적 측면에서 내담자의 진단과 관련한 문항이 평균 점수 4.49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개인적 측면에서 내담자의 행동양식을 이해하는 기술과 관련한 문항이 4.47점, 조직적 측면에서 윤리강령과 관련한 문항이 4.40점이었다. 전체 25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 결과를 나타낸 문항은 사회적 측면 중 사회봉사와 관련한 문항으로 평균 점수 3.17점이었다. 다음으로는 개인적 측면에서 음악 기술 중 작곡 및 편곡과 관련한 문항이 평균 점수 3.70점, 조직적 측면에서 기관의 사명, 철학,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련한 문항이 평균 점수 3.78점이었다.

#### 2) 경력에 따른 직업전문성 인식

음악치료사의 경력과 직업전문성 인식 점수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경력과 전문성 인식 점수의 상관관계는 상관계수 .237, 유의확률 .03으로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지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직업전문성 인식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개인적 측면과 경력과의

상관은 상관계수 .064, 유의확률 .57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조직적 측면의 경우 상관계수 .290, 유의확률 .01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사회적 측면의 경우 상관계수 .202, 유의확률 .07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Correlation Between the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and the Level of Perceived Professionalism (N= 78)

	Perceived professionalism			
	Individual	Organizational	Social	Total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064	.290*	.202	.237*

\*  $p < .05$ .

### 3) 교육정도에 따른 직업전문성 인식

음악치료사의 교육정도에 따른 직업전문성 인식은 학사졸업에서 석사과정 중인 집단은 평균점수 4.19점, 석사과정 졸업이라고 응답한 집단은 평균점수 4.07점, 박사과정 이상의 집단은 평균 점수 4.30점으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정도에 따른 전문성 인식 점수를 전문성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조직적, 사회적 측면의 문항이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다(조직적 측면,  $p = .01$ ; 사회적 측면,  $p = .02$ ). 개별 문항 중 개인적 영역에서 목소리 활용기술에 대한 문항은 학사 졸업에서 석사 과정 중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평균점수 4.50점으로 가장 높았고 석사과정 졸업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평균점수 3.98점, 박사과정 이상의 응답자가 3.80점 순이었다. 문항 중 조직적 측면에서 음악치료사 전문단체 필요와 관련한 문항은 학사졸업에서 석사과정 중인 집단이 평균 점수 4.08점, 석사과정 졸업인 집단이 평균 점수 4.12점, 박사과정 이상의 집단이 4.70점으로 교육정도가 높아질수록 평균 점수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본 결과를 Scheffe로 사후검증한 결과, 교육정도가 학사졸업에서 석사과정 중인 집단과 석사과정 졸업인 집단은 평균 0.15의 평균차이를 보였으나 유의확률 .25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학사졸업에서 석사과정 중인 집단과 박사과정 이상의 집단 역시 평균차이 0.11의 차이를 보였으나 유의확률 .66으로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석사과정 졸업 집단과 박사과정 이상의 집단 간 평균 차이는 0.26, 유의확률 .03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관한 내용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Ratings on Perceived Professionalism Depending on the Level of Education ( $N=78$ )

Aspect of professionalism	Bachelor's level <sup>a</sup> ( $n=12$ )		Master's level ( $n=56$ )		Doctoral level ( $n=10$ )		<i>F</i>	<i>p</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ndividual	4.28	0.34	4.15	0.35	4.26	0.36	0.96	.38
Organizational	4.08	0.36	4.07	0.36	4.43	0.29	4.26	.01*
Social	4.18	0.46	3.85	0.45	4.15	0.41	3.90	.02*
Total	4.19	0.27	4.07	0.28	4.30	0.27	3.21	.04*

a. Bachelor's level includes participants who achieved Bachelor's degree in music therapy or who are currently in the master's degree program.

\*  $p < .05$ .

음악치료사의 교육 정도에 따라 높은 전문성 인식 수준을 보여준 문항을 분석해보면 학사 졸업에서 석사과정 중인 집단과 박사과정 이상의 집단이 음악치료사 윤리강령에 대한 문항에서 각각 평균점수 4.83점, 4.80점을 보여, 해당 문항에서 가장 높은 인식 수준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과정 졸업의 집단은 진단명, 질환에 대한 지식과 관련한 문항에서 평균점수 4.50점으로 가장 높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2순위의 경우 학사졸업에서 석사과정 중인 집단이 치료철학 구축과 관련한 문항을 꼽았으며 평균 점수는 4.75점이었다. 석사과정 졸업 집단과 박사과정 이상의 집단은 내담자의 행동양식 이해와 관련한 문항이 각각 평균 점수 4.44점, 4.80점이었다. 마지막으로 3순위 문항은 학사졸업에서 석사과정 중인 집단의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한 직종에 관한 문항인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점수 4.58점). 석사과정 졸업 집단은 동료직원과의 관계유지와 관련한 문항이 평균 점수 4.39점인 반면에 박사과정 이상의 집단은 전문 음악치료 수퍼비전과 관련한 문항이 평균 점수가 4.70점이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Table 4>와 같다.

&lt;Table 4&gt; Items of Perceived Professionalism Highly Rated in Each Group of the Level of Education

Rank	Bachelor's level ( $n=12$ )	Master's level ( $n=56$ )	Doctoral level ( $n=10$ )
1	Music therapy ethics	Knowledge of clinical population and their diagnostic features	Music therapy ethics
2	Establishment of music therapy philosophy	Understanding of clients' behaviors	Understanding of clients' behaviors
3	Contribution to the society	Maintenance of relationship with other professionals	Professional music therapy supervision



#### 4. 음악치료사 직업전문성 자가 평가

본 연구에서는 음악치료사들이 자신의 전문성에 대해 자가평가하도록 하였다. 자신의 전문성에 대해 0-10점으로 평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최소 점수는 3점, 최대 점수는 10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7.24점으로 대체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에 따라 점수를 비교한 결과 학사졸업에서 석사과정 중인 집단의 평균 점수가 7.00점, 석사과정 졸업 집단의 평균 점수가 7.06점, 박사과정 이상 집단의 평균점수 8.40점으로 차이를 보였다. 통계적으로 보면 유의확률  $p < .001$ 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Ratings of the Professionalism of the Self in Each Group of the Level of Education

Level of education	<i>n</i>	<i>M</i>	<i>SD</i>	<i>F</i>	<i>p</i>
Bachelor's level	12	7.00	1.47		
Master's level	56	7.06	1.05	6.24	< .001***
Doctoral level	10	8.40	1.07		
Total	78	7.24	1.20		

\*\*\*  $p < .001$ .

#### 5. 직업전문성에 대한 음악치료사의 의견

음악치료사들에게 직업전문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앞서 구성한 직업전문성 개념을 바탕으로 전체 14개의 개념, 9개의 하위 범주, 5개의 범주의 결과가 나타났다. 응답자의 의견에 따르면 개인적 측면에서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는 음악 기술, 진단, 치료 평가가 있었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응답은 개인 내적 영역 중 치료사의 태도와 치료사의 치료 철학 구축에 대한 내용이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전문 단체와 팀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한 응답이 많았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음악치료 영역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응답은 내담자 진단명의 이해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Table 6>과 같다.

&lt;Table 6&gt; The Area Rated as the Most Important for Professionalism (N= 78)

Aspect of professionalism	Category	Subcategory	Item	Number of respondents	
Individual	Knowledge and skills	Assessment	Understanding of clients' diagnosis	47	
			Music skills	Accurate assessment of clients	34
				Use of music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clients	20
		Evaluation	Instrument playing skills	12	
			Quantification of music therapy outcomes	7	
			Evidence-based music therapy	6	
	Intrapersonal qualification	Music therapy philosophy	Establishment of an individual's own music therapy philosophy	6	
Attitude of therapists		Treating clients without bias	5		
Organizational	Professional organization	Ethics	Ethical practice	4	
		Continuing education	Participation in continuing education	3	
			Continuous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the field	2	
	Team approach	Relationship with others	Cooperation with staffs at an organization for which music therapists work	3	
	Social	Perception toward music therapy	Increased awareness	Promotion and recognition of music therapy in other professional fields through academic communication	3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음악치료사의 직업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전문자격을 보유한 음악치료사를 대상으로 직업전문성 인식, 자기평가, 직업전문성의 주요 요인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가진다.

음악치료사들의 직업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 전문 분야의 중요한 요인인 직업전문성의 인식수준이 적절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음악치료 교육과정이 대부분 석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체계적인 실습교육 및 인턴 과정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성에 대한 높은 인식은 학력 뿐 아니라 경력수준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에서 임상활동과 함께 병행되는 전문가 보수교육, 수퍼비전 등이 이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타 치료분야에서 실행된 전문성 인식 연구와도 유사하다 (Han & Hwang, 2012; Kim & You, 2011). 취약계층인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치료분야의 특성상 다른 분야에 비해 엄격하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치료사들의 인식이 본 연구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사료되며, 치료사들의 교육 수준에 대한 중요성 역시 내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직업전문성에 대한 자기평가, 즉 스스로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박사과정 이상의 응답자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상가로서의 음악치료사들이 상급학위 과정으로의 진입 이후 갖게 되는 음악치료 임상 및 학문에 대한 높은 목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적인 교육의 연장이 음악치료 분야 내에서 강조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직업전문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전문음악치료사들의 의견에 있어 진단평가 및 음악기술 관련한 전문지식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내담자의 진단명에 대한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담자의 증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치료목표설정 등 일련의 치료과정을 고려해 볼 때 치료사들의 음악치료 개입 단계에서의 중요성 인식은 치료분야 성장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며, 임상근거 학문으로써의 긍정적인 토대를 보여준다고 사료된다. 조직적 측면에서의 직업전문성에 있어 전문단체의 중요성이 언급된 것 역시 음악치료 분야 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는데, 특히 윤리강령, 보수교육 등은 전문단체의 존재의미와 이를 통한 분야의 성장이 기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음악치료사들의 높은 직업전문성은 임상분야에서의 긍정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반면, 전문지식과 개인내적역량에 관한 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조직적, 사회적 측면의 직업전문성에 대한 인식도 함양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요구되는 전문직의 특성이 반영되어 경력과 교육 정도에 따라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실제 음악치료 분야가 학문으로의 진입 시점이 대학원인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수준이 빠르게 형성될 수 있는 장점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수준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는데, 연구대상자의 평균 치료경력에 다소 짧게 나타나 신입음악치료사들의 응답이 주를 이루어 전반적인 모집단의 분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임상활동기관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이를 보완한 추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직업전문성에 대한 음악치료사의 인식, 음악치료사의 자기평가, 직업전문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확인하였다. 음악치료사의 직업전문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전문성 관리 및 교육, 전문 단체, 자격증 등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음악치료사 개인의 역량 강화와 성장 경험 혹은 이와 관련된 주요 요인에 대한 다양한 범위의 연구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Alley, J. M. (1978). Competency based evaluation of a music therapy curriculum. *Journal of Music Therapy, 15*(1), 9-14.
- An, D. H., & Kim, N. R. (2015). Influences of teacher stress on teacher competency and personal accomplishment of Korean elementary school teachers: Multigroup differences on gender(초등학교 교사의 스트레스가 교사역량과 개인적 성취감에 미치는 영향: 성별 간 다집단 분석).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1*(3), 273-295.
- Bruscia, K. E. (2014). *Defining music therapy* (3rd ed.). University Park, IL: Barcelona Publishers.
- Cha, I. J. (2008). *Clinical nurses'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 commitment* (임상간호사의 전문직업성과 직무만족 조직몰입의 관계)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 Chang, K. Y., Lee, H. S., Jung, M. Y., Jeon, B. J., Park, S. H., Woo, H. S., & Shim, S. H. (2015). Development of the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 essential competency(한국형 작업치료사 필수역량 개발연구).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3*(4), 1-16.
- Chong, H. J. (2007). Intrapersonal competency in music therapy: Challenges for education and clinical training(음악치료에서의 개인적 역량: 교육과 임상적 훈련에 대한 도전).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4*(2), 106-114.
- Chong, H. J. (2015). *Music therapy: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2nd ed.).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Chung, Y. J. (2001). *The history of music therapy in Korea*(한국 음악치료의 역사)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Davis, W. B., Gfeller, K. E., & Thaut, M. H. (2008). *An introduction to music therapy: Theory and practice* (3rd ed.). Silver Spring, MA: 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 Han, C. G., & Hwang, S. S. (2012). Professionalism perception of speech and language pathologists in Korea(바우처 기관 언어치료사의 직업 전문성 인식에 관한 연구). *Journal of Speech Language & Hearing Disorders, 21*(4), 287-305.
- Han, Y. H., Sohn, I. S., Park, K. O., & Kang, K. H. (2010). The relationships between professionalism, job involve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clinical nurses(병원간호사의 전문직업성, 직무몰입,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와의 관계).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6*(2), 17-31.
- Jeong, W. J. (2013). *A study on self-empowerment through a vocal improvisation of trainees*

- specialized in music therapy*(음악치료 전공생의 목소리 즉흥을 통한 자기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H. J. (2010). *An analysis of music therapist's self-evaluation and educational needs on professional competency*(음악치료사의 전문역량에 대한 자기평가와 교육요구 분석)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H. Y., & Kim, Y. M. (2011). A study on effect of perception of ethics and expertism of Korean social workers on their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한국 사회복지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58, 209-232.
- Kim, N. S., Nam, H. E., & Jin, H. M. (2014). The effect of burnout risk for burnout and its mediating effect of burnout resilience: About workers in community welfare centers(사회복지종사자들의 소진위험성과 소진의 관계에서 소진탄력성의 매개효과). *Journal of Critical Sociology*, 45, 98-124.
- Kim, S. J. (2009). A study on korean teacher librarians' perception of expertise(사서교사의 전문성 인식에 관한 연구).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3), 249-270.
- Kim, S. J. (2015, December). The current status of music therapy certification system and professionalism(음악치료사 자격제도의 국내외 현황과 전문성). In Lee. M. S. (Chair), *Settlement of rehabilitation therapy system in the developed countries*. Panel discussion conducted at the meeting of the Rehabilitation Therapist Association, Seoul.
- Kim, S. J., & You, Y. J. (2011). Current factors contributing to professionalism in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언어치료사의 전문성 인식 연구).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16, 397-407.
- Kim, S. Y. (2013). *The study on music therapy student's current additional curricular training and need for professional competency*(음악치료 대학원생의 치료사 역량 훈련 필요성 인식조사)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Y. H., & Han, H. J. (2012). Relationship study of teacher efficacy and commitment to teaching with recognition of special class teachers' professionalism(특수학급 교사의 전문성 인식에 따른 교사효능감 및 교사헌신도의 관계 분석).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Science*, 51(1), 91-108.
- Kim, Y. S. (2012). Music therapists' job satisfaction, collective self-esteem, and burnout. *The Arts in Psychotherapy*, 39(2012), 66-71.
- Koo, H. J., & Kim, M. Y. (2016). A study on the resilience and burn-out of the teachers in

- public preschools according to their personal variables(공립유치원 유아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심리적 소진과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6(1), 135-160.
- Kwon, N. W. (2009). A study on the ethical dimension of teaching as a teacher's professionalism(교사전문성으로서의 수업의 윤리적 측면). *The Journal of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9(3), 19-41.
- Lee, M. H. (2011). Counselor's psychotherapy and expertise development(상담자의 심리치료와 전문성 발달).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25, 27-59.
- Lee, S. H., & Bang, Y. S. (2015).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and burnout on the job attitude of occupational therapists(작업치료사의 감정노동과 소진이 근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3(1), 95-108.
- Lim, S. R. (2002). A study on the teaching ethics of early childhood teachers(유아교사의 교직 윤리의식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19(1), 157-173.
- Moreno, J. (1969). The identity of music therapist. *Journal of Music Therapy*, 6(1), 19-25.
-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Music Therapists (2016). Who are Korean certified music therapist?(음악중재전문가가 되려면) Retrieved from [http://www.nakmt.or.kr/sub/sub2\\_2.asp](http://www.nakmt.or.kr/sub/sub2_2.asp)
- Yi, S. Y. (2008). Music therapists' experiences in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음악치료사의 역전이 경험 양상과 역전이 관리 능력).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5(1), 17-41.
- You, Y. J., & Choi, B. C. (2012). A study on the rehabilitation therapists'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장애아동재활치료사의 전문성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Korean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and Health Disabilities*, 55(3), 163-183.

- 게재신청일: 2016. 10. 12.
- 수정투고일: 2016. 11. 11.
- 게재확정일: 2016. 11. 18.

**<부록 1> 전문성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문항**

다음은 귀하의 임상과 전문가로서의 활동 및 사회적 역할을 포함한 문항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점수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은 전체 34문항입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항 목	①	②	③	④	⑤
1. 음악치료사에게는 음악 이론관련 지식이 요구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음악치료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작곡, 편곡 기술이 요구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음악치료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악기 연주 기술(건반, 기타, 타악기 등)이 요구된다.	①	②	③	④	⑤
4. 음악치료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목소리 활용 기술(노래 부르기 등)이 요구된다.	①	②	③	④	⑤
5. 음악치료사에게는 내담자의 진단명, 질환의 증상 원인에 대한 높은 지식이 요구된다.	①	②	③	④	⑤
6. 음악치료사에게는 내담자의 다양한 행동양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①	②	③	④	⑤
7. 음악치료사에게는 내담자의 보호자와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①	②	③	④	⑤
8. 음악치료사에게는 수행하는 프로그램(세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평가가 요구된다.	①	②	③	④	⑤
9. 음악치료사에게는 음악치료의 중재효과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①	②	③	④	⑤
10. 음악치료사에게는 최신 연구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하여 임상에 적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①	②	③	④	⑤
11. 음악치료사에게는 치료 철학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음악치료사에게는 소진을 예방하는 적절한 방안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음악치료사에게는 자신의 성장 발전을 위해 전문 음악치료 수퍼비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음악치료사에게는 음악치료사 윤리강령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음악치료사에게는 팀 내 전문가와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요구된다.	①	②	③	④	⑤



16. 음악치료사에게는 동료 직원(기관 담당자, 치료사 등)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①	②	③	④	⑤
17. 음악치료사에게는 기관의 사명, 철학, 정책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갖는 것이 요구된다.	①	②	③	④	⑤
18. 음악치료사에게는 보수교육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9. 음악치료사에게는 보수교육 이외에 학술대회 및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0. 음악치료사의 전문성관리를 위해서는 음악치료사 전문 단체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취득한) 음악치료사 자격증은 자격체계가 엄격하다.	①	②	③	④	⑤
22. 음악치료사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직종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음악치료사는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봉사를 중요시하는 직종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음악치료사는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의 정도가 명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25. 음악치료사는 음악치료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6. 귀하는 음악치료사로서의 자신의 전문성에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으십니까?  
(\_\_\_\_\_ 점)

27. 귀하는 음악치료사의 전문성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자유로운 의견을 아래에 적어주세요.

## Music Therapists' Perceptions on Professionalism

Choi, Ju Ai\*

This study investigated how music therapists perceive the professionalism of the profession. A total of 98 certified music therapists completed the online survey for a 46.7% response rate, and 78 questionnaire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after excluding incomplete respon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music therapists show a high level of standards for music therapy professionalism in general. Meanwhile, the respondents gave their lowest rating on the perception of their occupation as a social service addressing the needs of society. The majority of respondents rated the level of their professionalism as high and they tended to identify individual competency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ls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eived professionalism depending on the length of clinical practice and level of educa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quality of training may contribute to a high level of perception on professionalism. Also, lower levels of perception on social aspects of the professionalism support the need for continuing education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professionalism. Given the importance of professionalism in enhancing the quality of care for clients and expanding the profession, further studies were suggested to increase understanding of the music therapy professionalism and propose strategies for maintaining the professionalism of music therapists.

*Keywords* : *perception of music therapist, music therapist, professionalism, survey*

---

\* Researcher, Raaswi Music, Korean Certified Music Therapist(KCMT) (ch3658@hanmail.net)